

— 油協 主催 —

「第1回 石油세미나」 盛況裡에 마쳐 —

大韓石油協會가 주최한 第1回 石油세미나가 지난 10월 29일 하오 1시30분 全經聯會館 國際會議室에서 崔鍾賢 회장을 비롯, 4백여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80年代 石油產業의 座標와 進路」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石油危機와 脫石油가 진행되는 상황하에서 精油產業의 대응전략과 건전한 發展을 위한 進路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尹秀吉 動資部 石油調整官은 「80年代 石油政策推進方向」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원활한 原油需給을 위해 原油導入先의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현재 86.1%수준인 中東依存度를 86년까지는 60% 수준으로 낮추어 나가는 한편 精油會社의 直導入 형태를 적극 권장하고, 石油의 비축을 적극 추진하여 86년까지는 정부도 60分 정도의 物量을 비축하고 民間精油會社는 83년까지 60分 저장 시설을 완공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尹局長은 또한 국내 油類수요의 輕質化추세에 대처하여 各精油會社가 86년까지 9만B/D의 重質油分解시설을 갖추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앞으로의 국내 油價政策은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능한 한 낮은 水準으로 유지하고, 정유회사의 缺損은 종전과 같이, 사후에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유회사의 결손은 가



◇ 4백여명이 성황을 이룬 石油세미나光景 :
첫번째 演士인 動資部 尹秀吉 石油調整官

격에 반영된 精製費의 현실화를 통해 대처해 나가되 안정기금의 본래의 설치목적에 따라 原油匯平準化제도 실시를 위해서만 사용토록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또 趙東成교수(서울대)는 「80年代 石油情勢展望과 対応戰略」을 통해 현재 우리는 국가적 次元에서 石油危機의 도래에 대비한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 국가경제계획의 기본 골격에 石油危機가 가져올 충격을 미리 감안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쿠션, 즉 완충장치를 마련하고 動資部의 위치를 格上하여 정부내에서의 발언권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趙교수는 또한 民間企業의 대응

전략으로서 정유회사들이 무미건조한 精油事業에만 安住할 것이 아니라 정유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油田탐사에 참여하거나 원유수송, 原油 및 石油제품거래등 수직적 결합을 도모하여 국제적인 石油메이저와 겨룰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徐孝重부사장(油公)은 「石油產業의 當面課題와 進路」에서 정유업체의 경영악화는 단기적으로 제품가격을 통해 適正이윤을 보장받음으로써 일단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현행 油價제도를 정유산업의 實質利益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에너지산업에의 재투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